

코로나19 확산세 이번주가 골든타임...국민 협조에 달려있다

방역당국 향후 7~10일, 전문가들 3~4일 골든타임으로 예측

정부 통제 벗어난 지역사회 전파...예방수칙이 확산세 막아

정부와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중앙정부 통제 범위를 벗어난 지역사회 전파 양상이 확실해진 만큼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3일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부를 가동했다. 총리가 전면에서 감염병 유행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향후 일주일~10일 중대 고비"...위기경보 '심각' 격상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같은 상황이 국내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절박감이 크기 때문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향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좌우하는 중대 고비

비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의료인이 다 함께 도와주면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지역 내에서 소멸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전략은 해외 유입 차단과 환자 발견,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격리 등 봉쇄정책을 유지한다"며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 두 방향을 병행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면 통상적인 검역을 유지하는 대신 지역사회에서 확진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형태로 방역체계가 바뀌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해외 유입에 의한 코로나19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고 공항과 항만 등의 현 검역체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능후 1차장은 "코로나19 전파 양상이 그 규모는 크지만 일부 지역 또는 집단에 의한 단일 전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봉쇄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지역 내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법정부적인 역량

을 모두 동원해 고강도 방역 봉쇄망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1차장은 이어 국민들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대구 시민들 역시 외출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가들 골든타임 3~4일 예측...지역 방역시스템 강조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이 3~4일가량 남은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예상보다 짧게는 3~4일, 길게는 일주일 앞선 시점이다.

김동현 한림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예방의학전문)는 "골든타임이 3~4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 중심의 방역대응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확진환자가 하루에 100명 넘게 생기고, 발생 지역도 전국으로 퍼졌다"며 "지금은 (지역사회 전파) 이렇기여서 대구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나머지 지역은 확산을 방지하는 투 트랙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은 "확진환자에 노출된 사람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달 마지막 주를 우려하고 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난 21일 대전 중구 중앙로 지하상가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뒤 대전시 방역 관계자가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소독을 하고 있다.

다"며 "코로나19는 지역사회 차원으로 감염자 증가세가 폭발적일 수 있으며, 감당이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가에서도 의료자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효율적으로 배분해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존에는 확진환자를 격리해 비교적 안전했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예방수칙을 지켜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손 씻기·외출 줄이는 예방수칙이 확산세 막을 열쇠로 떠올라
방역당국과 전문가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세를 꺾을 열쇠는 국민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법은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은 30초 이상 손을 씻고 오염된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것이다. 집과 공공기관, 직장에서도 사람들 손이 자주 닿는 문고리 등을 자주 소독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 종교 행사는 당분간 삼가는 게 좋다.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기보다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해 보건

소 또는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자가격리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추가 전파를 막는 지름길이다. 이 예방수칙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집에서도 가족들과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생활하며, 문고리 등을 자주 소독하는 것도 중요하다. 손은 물과 비누, 손 세정제 등을 이용해 자주 씻는다. 식기와 팔걸, 수건, 침구 같은 생활용품도 격리자와 가족들이 사용하는 것을 구분해 사용한다.

격리자 의복과 침구류는 별도로 세탁하고, 사람의 손길이 자주 닿는 곳은 자주 닦는 게 안전하다.

서울시, 내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100% 설치

서울시는 일명 '민식이법'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를 조기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 사고 발생시 가해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개정안 등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54건으로 이 중 4명이 사망하고 79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시는 당초 계획한 목표를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를 100% 설치 완료하기로 했다. 시 전역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가 대상이다.

또 차도와 보행로가 혼재된 이면도로는 보행자가 최우선되는 어린이친화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제한속도도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30km/h 이하보다 더 낮춰 20km/h로 조정 추진한다.

어린이들의 사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48개소 417면)도 연말까지 모두 폐지된다. 폐지 방침 이후에도 불법주차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만큼 불법주차 단속을 CCTV 50대가 설치된다.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632개소에는 총 850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상태다.

시민·주민신고제 구간도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상반기 중 320개 구간이 새롭게 추가된다.



16년 만에 화훼농가 덮친 타격 21일 오후 강원 춘천시 남산면의 한 화훼 농가에서 틀림 출하를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출품시 등 행사들이 축소되고 경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돌잔치 취소, 결혼식 줄줄이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충북에서 돌잔치 취소나 결혼식 연기 등 급증하고 있다.

청주에 사는 직장인 A씨(33)는 다음 달로 예정된 자녀 돌잔치 일정을 급히 취소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돌잔치를 예정대로 진행할 생각이었지만, 지역 확진자가 나오면서 취소하기로 했다.

A씨는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돌잔치 취소를 알리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여쭙 수 없이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역 온라인 맘카페 등에는 돌잔치 취소 관련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돌잔치가 임박한 부모들은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발생 문제나 사전 주문을 마친 담례품 처리 걱정을 토로했다.

한 회원은 "오늘 일정을 취소했

는데 위약금만 100만원 이상 깨졌다"고 털어놨다.

다른 회원들도 "일정을 취소하니 너무 속상하다" "의상과 사진 촬영 예약도 모두 취소하고 있다" "일단 취소하고 가족끼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관련 업체 관계자는 "3월로 예정된 돌잔치 대부분이 취소된 상황"이라며 "남은 예약 일정도 취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예약 취소 부모들에게 위약금을 요구했던 지역 한 돌잔치 업체는 뒤늦게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입장을 선화했다.

이 업체에서 돌잔치를 취소한 B씨는 "돌잔치 손님 70명을 예약했다가 코로나19 발생 후 인원을 줄여 다시 계약했다"면서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니 70명 기준으로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비와 상차림비 등 위약금 143만원을 내라고 해 황당했다"면서 "업체에 항의가 많아서인지 결국 위약금은 받지 않았고, 계약금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결혼식 연기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의 관련 문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대로 결혼식을 하더라도 하객 식사 인원 예약을 줄이고 담례품을 늘리는 경우도 있다.

한 결혼식장 관계자는 "예식 일정 관련 문의 전화가 꾸준하다.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지역 확진자가 나와서인지 지난 주말부터 결혼식 일정 변경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며 "일정 변경을 희망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조율해 변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 신천지 3만명, 코로나19 검사 실시

정부는 감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사 증상자와 구분하기 어려운 대구 시민 2만8000여명과 신천지 교인을 포함해 총 3만7000여명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2주 안에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지역에 대한 강력한 봉쇄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가 초기에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여 유증상자로 보일 만한 요소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고,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유추할 때 (대구 시민) 2만8000여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과 대구 지역사회 주민 중 유증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과거 통계를 기반으

로 추정할 때 총 3만7000여명이며, 2주일 내에 집중적으로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여기에서 확진환자로 나오면 바로 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했다"며 "대구 내지는 인근 지역에 병상을 마련하고 의료진을 파견해 치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 시민 2만8000여명이 다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초기에 기침과 콧물 등 (감기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대략 대구에서 2만8000여명이 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적어도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해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한으로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체 확진환자 수는 763명이다. 이중 대구가 457명으로 전체 59.9%를 차지한다. 이어 경북이 180명으로 23.6%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지역 확진환자 수가 전체 감염자의 83.5%에 달한다.

대구·경북지역, 마스크 사려고 '복적'

이마트가 24일 대구·경북지역에서 마스크 141만장을 우선 판매하기로 하면서 대구·경북지역 이마트 앞에는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인파로 긴 대기줄이 생기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마트는 마스크 81만 장은 대구·경북지역 이마트 7개점(경산점·감삼점·만촌점·반야월점·성서점·월배점·칠성점), 60만 장은 트레이더스 1개 점(비산점)에서 판매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지역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이마트로 몰리며 마트 앞에는 긴 줄

이 생겼다. 현재 이 중 1개 점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소진됐지만 대체로 아직 재고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이마트가 판매하는 마스크는 '필트'의 프리미엄 마스크 브랜드 '에티카' 상품이다. 등급은 KF94이며 가격은 장당 820원이다. 기존 에티카 KF94 상품이 1500원 이상에 팔리는 점을 고려하면 약 45% 저렴한 것이다.

이마트는 최대한 많은 고객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30장 한정 판매하기로 했다.